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내기 중독입니다.]

"웃기는 소리, 내가 내기 중독이 아니라는 데 만 엔 걸죠."

[두상]



[외관]



두상&외관 다운로드 링크

큰 키에 군살 없이 탄탄한 몸. 피부는 흰 편이지만 보기 좋게 혈색이 돌아 건강해보인다.

단정치 못하게 대충 묶은 길고 하얀 머리칼의 끝부분은 시리도록 푸른 색으로 물들어 있다. 왼쪽 앞머리(캐릭터 기준)를 길게 내려 얼굴의 반을 가리고 있다.

부드럽게 내려간 눈매는 끝이 뾰족하여 마치 여우와도 같은 인상을 준다. 푸른색의 눈동자는 흥미로운 것을 탐색하듯 항상 특유의 번뜩이는 광채를 띠고 있다. 눈가에는 눈동자와 같은 푸른색으로 화장을 했다. 늘 부드럽게 웃음을 머금고 있는 눈매는 사납거나 날카로운 인상을 주진 않지만, 어딘가 속내를 감춘, 마치 뱀이나 여우와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짤뚱하고 세모진 눈썹과 툭 튀어나온 송곳니는 개구진 인상을 준다. 손톱과 발톱은 푸른색으로 물들었다. 손톱은 특히나 길고 뾰족하기까지 해 위협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오른쪽 이마 위에는 푸른색의 뿔이 돌아있다. 왼쪽의 뿔은 머리카락에 가린 건지, 아예 없는 건지 보이지 않는다. 왼쪽 뿔은 머리카락에 가린 건지, 없는 건지 보이지 않는다.

오른쪽 귀에 부적처럼 생긴 장식을 달고 있다.

일본 전통 복식과 현대식 수영복을 섞은 듯한 느낌의 차림새이다. 색깔도 본인의 상징색인 푸른색과 흰색으로 맞춰 입었다. 언뜻 보면 이상한 센스의 차림으로 보일지도.

[이름]

쇼우 / 靑

靑.

푸르다 / 고요하다

한눈에 봐도 온몸을 푸른색으로 휘감은 그의 모습은 이름과 썩 어울릴 터였다.

이 이름은 기억도 안날 정도로 까마득한 옛날, 그가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성도 없을 뿐더러 어딘가 대충 지은 듯한 느낌도 없잖아 있지만, 본인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걸로 보인다. "알기 쉽고 좋지 않나요? 아니면 말고요~"

[진영]

빌런

[키, 몸무게]

181cm / 75kg

[나이]

495세

(외관나이 25세)

본인 말로는 사실 이보다 더 됐을 수도 있다고 한다. 어느 순간부터 세는 것을 잊어서 그냥 계속 495세라고 말한다고. "영원한 17..아니, 495세,..라고 할까요?(웃음)"

[성별]

남

[이능력]

명경지수

明鏡止水

자신을 기준으로 반경 10m내에 있는 모든 대상의 움직임을 정지시킨다.

생물부터 실체가 없는 대상(바람,불)까지 모두 포함된다.

[종족]

오니

근력, 민첩 등 전반적인 신체능력이 인간보다 뛰어나다.

맷집이 강하고 튼튼하며, 치유력도 뛰어나 자잘한 상처들은 금세 아문다. 또한 노화가 느리게 진행되어 생애의 대부분을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지낸다.

[성격]

MAIN KEYWORDS : 변덕스러운/여유로운/ponde?

변덕스러운/즉흥적인/기분파

“아, 이제 재미없어졌어요. 다른 건 없으려나?”

늘 기분 내키는 대로 흥미와 쾌락을 추구하는 그는 변덕이 죽 끓듯 한다. 오늘까지만 해도 흥미로웠던 것이 다음날은 질렸다면 싫증을 내고, 어제는 눈길도 주지 않던 것이 오늘은 마음에 든다면 관심을 보이는 등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이런 성격 탓에 매사에 계획 없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편. 약간 제멋대로인 면도 없잖아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면 기분이 급격하게 다운되곤 한다.

여유로운/뻔뻔한

“서둘러서 좋을 게 뭐 있어요? 느긋하게 즐겨요.”

그는 매사에 여유롭고 느긋한 태도를 유지한다. 나이 지긋한 노신사에게서 느껴지는 특유의 여유로움이 극에 달하면 이렇게 되는 걸까?싶을 정도의 여유로움이다. 뭐, 500년 가까이 살아왔으니 그럴 법도 하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가 굶뜬 데다 바보같은 정도로 낙천적이라며 답답하고 알미워보인다고 말하기도 한다. 실제로 뻔뻔한 기질도 있어서, 마냥 부정할 순 없는 말이다. 여담으로, 종종 느릿하게 밖을 거닐며 산책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꼰대?/Latte is horse...

“저런, 1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않았는데 말이죠.”

수백년을 동방의 국가에서 살아온 탓일까? 그는 걸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꼰대 영감님 같은 말을 자주 한다. 말투만 점잖을 뿐이지. 예의 그 “요즘 것들이란~”, “라떼는 말이야~”와 별반 다르지 않다. 굳이 다른 점을 꼽자면 나 때는~의 ‘나 때’가 몇 백 년 전을 오간다는 것 정도일까. 평소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간접하며 다른 사람을 열받게 하는 일이 꽤나 잦다. 하지만 본인은 그것마저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어딘가 장난스럽고 짓궂은 구석이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썩한/속내를 감춘

“흐음~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는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좋은 사람을 연기하는 것에 능숙하다. 시종일관 변화 없이 한결같은 그의 표정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도 할 수 없게끔 만든다. 늘상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고 있자면 그가 흉악한 빌런이라는 사실조차 오히려 잊어버릴 정도. 그럼에도 미처 숨기지 못한 건지, 감이 좋은 몇몇 사람들은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썩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한다.

[기타]

생일

불명.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처럼 햇볕이 내리쬐는 어느 여름날, 하늘이 푸르던 날에 태어났다는 것만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국적

일본

好

내기

그는 단순히 말로 하는 자잘한 내기부터, 본격적으로 큰 돈이 오가는...소위 말해 도박까지. 내기라면 가리지 않고 좋아한다. 50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봐왔던, 이젠 별로 색다를 것도 즐거울 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삶의 낙이라고, 그는 말한다. 덕분에 틈만 나면 ‘내기할래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에 비해 승률이 썩 대단하진 않다. 승패와 관계 없이 내기 자체를 즐기는 듯.

술

오니들은 술을 잘 마신다고 했던가? 그도 오니인 만큼 별반 다르지 않다. 과연 취하긴 하는 걸까 싶을 정도로, 끝도 없이 술을 마셔도 전혀 취한 기색 하나 없이 평소와 같은 여유로운 얼굴로 있을 뿐이다.

평소에도 술이 물이라도 되는 양 퍼마신다고 한다. 가끔씩 평온한 얼굴로 차를 훌쩍거리는 그에게 다가가보면 사실 차가 아니라 술이었다...같은 상황도 종종 있다.

不好

지루한 것

아무리 세상이 빨리 변한다고 해도, 500년 가까이 살아온 쇼우에게는 대부분의 사건사고들은 뻔하고 지루하게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늘 거기서 거기인 일상에 질려버린 그는, 늘 새롭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니 그의 관심을 끌고 싶다면, 어떻게든 흥미롭고 새로운 주제를 꺼내보자. 조금이라도 지루하거나 따분한 얘기를 하는 순간, 그는 금세 흥미를 잃고 싫증을 낼 테니.

콩

오니의 종족 특성 상 콩을 굉장히 싫어한다. 콩만 보면 질색하고 저 멀리 피해 버리기 일쑤. 무서워하냐고 물으면 예전에야 그랬지만 지금은 익숙해져서 무섭진 않다고 말한다. 절분 때마다 콩에 맞은 추억이 떠오른다면 기분이 나빠지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좋아하진 않지만 먹으려면 먹을 순 있다고.

그 외

패션 센스가 별로다. 50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세대의 패션 감각이 뒤섞인 것으로 보인다. 최신 유행 핫 아이템부터, 할아버지 옷장에서 꺼내온 것만 같은 옷이나 아예 시대가 다른 옷까지, 그야말로 환상의...아니, 환장의 퓨전을 선보인다.

가리는 것 없이 다 잘 먹는 편이지만, 어째 자주 먹는 음식들을 보면 죄다 할아버지 취향이다.(...) 양갱이라든지, 옥춘이라든지... 여담으로, 그의 집에는 항상 사랑방 사탕이 있다고 한다.

빌런 일을 하기 전에는 다양한 일을 해봤다고 한다. 나무꾼부터 라멘집 알바까지, 긴 세월 동안 별의 별 일을 다 해봐서 그런지 웬만한 일은 다 할 줄 안다.

생각보다 돈이 꽤나 많다. 500년을 일하며 모아왔으니, 아마 상당한 양일 것으로 추정된다.

상대를 부를 때는 이름에 ~씨를 붙여 부른다. 좀 더 친해지면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경우도 있다. 말투는 기본적으로 '~해요'체를 쓰며, 가끔씩 반말을 섞어 쓰는 경우도 있다. 의외라면 의외일까, 늙은이 말투를 사용하지 않는다. 말투까지 그러면 너무 영감님 같다니 뭐라나. (하지만 하는 짓은 영락없이 영감님이다.)

“서로 비밀이라도 걸고 내기할까요?”
